

VI. 主要 政策 解說

재정경제원,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앞당겨 개방(5.13)

- 학원, 인력공급업, 시내버스 운송업, 변호사업 등 28개 업종을 추가로 97년 개방
- 97년 66개, 98년 11개, 99년 6개 업종으로 단계적 확대 개방

재정경제원, 투자신탁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 기준 마련(5.14)

- 11위 이하의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들은 출자 지분이나 주주 구성에 제한 없이 투신사 설립 자유
- 증권사는 96년 6월 이후, 은행·보험·개인 소유의 투자 자문사는 97년 이후 투신사 설립 자유

중소기업청, 「중소 기업 금융 지원 협의안」 마련, 7월 시행(5.16)

- 정책 자금 대출금의 연체 금리 2% 포인트 인하
- 자동화 구조 개선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에 1억 원까지 운전 자금 지원

재정경제원, 「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안」 앞당겨 시행(97년→96년 6월)(5.17)

- 해외 이주비 한도 철폐(4인 가족 기준 1백만 달러 초과시 한국은행 허가)
- 기업들의 해외 사무소 경비 지급 한도, 은행의 해외 점포 설치 및 업무 제한 폐지
- 기관 투자가의 해외 예금,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 전면 자유화

재정경제원, 하반기 물가 인하 유도(5.18)

- 한우 고기 소매가, 자동차·가전 제품 등 공산품 가격의 인하 유도
- 서울시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낮춰 줄 것을 요구

건설교통부, 「도시 환경 세계화 전략」 마련(5.22)

- 98년부터 토지 등기시 토지 채권을 매입토록하여 신도시 개발 재원으로 활용
-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의 저밀도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수준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는 '기준 용적률'이 도입

행정세신위원회·재정경제원, 금융 분야 규제 완화 방안 확정(5.24)

- 7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가 폐지되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차등화
- 1인당 5억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사망 보험금 한도 폐지
- 승강기 등 건물이나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리스 가능